

GIST아카데미 10월 조찬포럼 개최...

“존경받는 나라 대도약 필요”

- 강운태 GIST 명예석좌교수, '호민(豪民)의 길-꿈과 도전 그리고 이룸' 주제로 30일(월) 특강... 지금은 대도약을 위한 단계



▲ GIST아카데미가 오룡관에서 10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10월 30일(월) 오룡관에서 광주·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**10월 조찬포럼을 개최**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포럼의 연사로 나선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강운태 명예석좌교수는 **‘호민(豪民)의 길-꿈과 도전 그리고 이룸’**을 주제로 강연했다.

광주광역시장을 역임하기도 한 강운태 교수는 강연에 앞서 광주의 지역경제 및 산업 현황을 설명하고, 이를 기반으로 한 **시특화도시, 한국형 실리콘밸리 등 도약을 위한 기회 요인**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.

조선시대 학자인 허균은 고전 소설인 <호민론(豪民論)>에서 **‘호민’**은 쉽게 부릴 수 있는 백성인 ‘항민’과 ‘원민’과는 달리 부당한 대우와 사회의 부조리에 도전하는 백성으로, **지배계급에게 두려운 존재**라고 했다.

강 교수는 호민(豪民)의 핵심키워드로 ▲‘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’ ▲‘물음표(?) 느낌표(!)가 많은 삶을 살라’ ▲‘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’ ▲‘간절함 속에 지혜가 나온다’ ▲‘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’ ▲‘봉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크다’ ▲‘몸과 마음을 단련하라’를 설명했다.

또한 한국은 현재 선진과학기술국 초입단계에 이르렀으며, '존경받는 나라'를 향한 핵심기술로, **뇌과학, 인공지능, 휴머노이드 등 미래의 10대 선도 기술**을 언급하며, **관련 연구 성과의 중요성**을 알렸다.

강운태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대개혁의 단계에 이르렀고, **대도약을 향한 7대 필요조건**으로 ▲통일의 큰 소명 완수 ▲인구정책의 정상화 ▲퇴행적 정치의 대개혁 ▲대기업의 일자리 책무 강화 ▲4대 국민보험의 재설계·견실화 ▲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 타파 ▲과학기술의 초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"**호민으로서의 삶의 덕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강조하며,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,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한다**"고 말하며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.

GIST아카데미는 GIST의 비학위과정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(2010년 개원)와 기후변화아카데미(2016년 개원)를 운영하고 있으며,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카데미 동문 및 지역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**각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'GIST아카데미 조찬포럼'**을 개최하고 있다.

GIST아카데미는 각 분야 경영자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기업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영전략 등을 깊이 이해하고 **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**하며 **지역경제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**하고 있다.